

사회



“웃음으로 맞이 하세요” (재)한국방문의해 위원회 대학생 홍보단인 미스코리아가 ‘사랑받는 대한민국 이렇게 웃어봐요’ 팀이 7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외국인 환대 실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 교육 환경 갈수록 악화

초등 126곳 '복식수업'...학생수 60명 미만 고교 11곳

“농어촌 고교 통·폐합 거점고 추진해야” 공청회 주장

전남지역에서 '복식수업'(한 학급에서 2개 학년을 교사 1명이 가르치는 수업형태)이 필요한 초등학교가 무려 126개교에 달하는 등 학생수 급감으로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현상은 고등학교까지 이어져 학생수 60명 미만 고교가 11개, 6학년 이하 고교도 무려 35곳이나 됐다.

때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교수는 “전남의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시·군 단위별로 우수한 거점고를 육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에서 아무리 우수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더라도 고등학교가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인재의 유출은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7일 전남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거점고 육성 공청회에 발제자로 나선 서울과학기술대 류준근 교수는 “복식수업 학교 증가, 상치교사 급증 등 열악해지는 전남의 교육환경은 자녀 교육 때문에 부모들이 농어촌을

그는 “고교 단계는 대학 진학과 취업교육을 위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교육여건이 중요하다”며 “기숙형 고교에서 충분히 확보된 과목별 전문 교사들로부터 자기적성과 진로 및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승주 전남교육미래위원은 “거점고 육성에 따른 통폐합 감축정책은 전남교육과 지역공동체의 공간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부작용 등 변수들을 고려, 시범적으로 최대 3개 지역 내에서 추진하면서 확대·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거점고 육성사업=학생수 급감으로 정상수업이 어려운 농어촌 고교의 폐쇄를 유도하고 공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지역의 일부 학교를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교육청은 도내 19개 농어촌 지역 공립고등학교 80곳 가운데 37곳을 거점고로 지정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예방 '애정남' 해결사 등장

남부경찰 방법대원, 사례별 눈높이 설명

'애정남(애매한 것을 정리해주는 남자)이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중학교에 왔다.'

7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암동 모중학교 강당. 광주지방경찰청이 마련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서 남부경찰서 방법대원들이 남부경찰서 방법대원들이 학교폭력과 관련, 학생들의 궁금증을 유쾌하게 해결해줬다.

얼마 전 학교폭력으로 친구를 하늘로 보내야하는 아픔을 겪었던 720여명의 학생들은 전·의경들이 몸소 들려주는 공트를 보면서 미소를 되찾았다.

전·의경들은 개콘서트의 '애정남' 코너 형식을 빌려 최근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해 '돈 또는 물건을 빌리는 것과 빼앗는 것의 차이' '심부름과 부탁의 차이' 등

을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했다. 전·의경들이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 지겹고 딱딱하기만 했던 교육이 즐겁고 유쾌하게 바뀌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짧은 경찰 아저씨들이 우리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자칫 지겨워질 수 있는 교육 시간이 즐거워졌다”고 말했다.

남부서 '애정남'들은 “학교 폭력을 방관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비겁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처벌됩니다. 이런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겁니다”라고 교육을 마무리했다.

한편 광주경찰은 이날부터 관내 초·중·고교 306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친' 범죄 예방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학교폭력 방임 교사 사법처리

경찰청 지침 전달

경찰이 학교폭력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사가 명백하게 직무를 유기할 경우 사법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기하거나 포기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사를 형사입건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 같은 방침 아래 지난해 11월 발생한 여중생 투신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양천경찰서에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를 사법 처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광주일보 2월 7일 6면> 양천경찰서는 학교폭력에 시달려

온 여중생이 투신자살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교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중학교 교사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온 여중생(당시 14세)과 학부모가 자신을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학교폭력을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대처 과정에서 교사가 명백하게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사도 처벌할 수 있다는 방침은 다른 사건에도 준용되는 경찰의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연희뉴스

Weather forecast for today (오늘 날씨)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for various regions (e.g., 광주, 목포, 여수, 완도, 구례, 강진, 해남, 장흥, 순천, 영광, 진도, 전주, 군산, 남원, 흑산도) and a map of the region. It also includes tide information (조수) and a 7-day forecast table.

깨진 '민주의 종' 10일 무게 측정

광주지방경찰청이 깨진 상태로 납품돼 물의를 일으킨 '광주 민주의 종'에 대해 오는 10일 오전 무게 측정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7일 “서구 유덕동 환경관리공단에 보관 중인 '민주의 종' 무게를 정확히 측정해 의혹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이동계측기와 고속도로 과적화물 단속 계측기 등 장비를 동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종의 무게가 30t이 넘어 계측을 위한 준비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현재 보관된 종은 조립식 창고에서 눕혀진 상태로 무게를 재려면 이 창고를 다시 해체해야 한다.

무엇보다 계측기 위에 종을 올리려면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야 하지만, 가능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의 종은 시민 성금 등 14억 6000여만원으로 만들어져 2005년 10월 옛 전남경찰청 차고에 설치됐으나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 때문에 2008년부터 환경관리공단에 임시 보관 중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 brand hearing aids. It features a cartoon character on a horse and text in Korean: '난청은 물론 이명까지 -젠 톤- 말 소리가 잘 안들린다구요? 국제보청기'. It lists various store locations and phone numbers.

Advertisement for 'Green Narmoo' (그린나르모) hair care products. It highlights '탈모방지 양모효과' (anti-hair loss and hair growth effects) and lists products like '그린나르모 케어 샴푸액' and '그린나르모 케어 린스'. It also mentions '그린알로에' (Green Aloe) brand.

Advertisement for 'Itaeri Furniture Shopping Mall' (이태리가구 쇼핑몰). It features the website 'www.100424.com' and the phone number '1899-0240'. It lists the address as '동구 장동 58-15 장동로터리 동구청-전남여고사이'.